

‘해든이 사건’ 친모 감형…시민들 “납득 안돼”

항소심 “계획 범행 아냐”…친부 징역 4년6개월 유지 시민모임 “죽음 되돌릴 수 없어…대법원 항소해주길”

생후 4개월 된 아들을 반복적으로 학대해 숨지게 한 이른바 ‘해든이 사건’의 친모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시민들은 “아동학대살해 사건에 지나치게 온정적인 판결”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황진희)는 이날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34)의 항소심에서 원심의 무기징역을 파기하고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아동학대살해 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친부 B씨(36)에게는 1심과 같은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22일 전남광주통합

특별시 여주시 자택에서 생후 4개월 된 아들을 수차례 폭행한 뒤 물이 흐르는 욕조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아들의 팔을 잡아 침대에 내던지거나 머리채를 잡아 늘리는 등 반복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학대가 이어지면서 아이의 몸에서는 다수의 멍과 장기 출혈 등이 발견됐으며, 결국 출생 133일 만에 숨졌다.

1심 재판부는 지난 4월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해든이가 생존 기간의 절반에 가까운 60일 동안 학대를 당한 끝에 사망한 점 등을 들어 부

모의 보호 책임을 강조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이 단순히 우발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볼 수는 없지만, 사건에 살해를 계획하거나 치밀하게 준비해 실행한 범행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범행 당시 A씨가 피해 아동의 사망을 적극적으로 원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뒤늦게나마 아이가 겪었을 고통과 자

신의 잘못으로 발생한 결과를 참회하는 모습을 보인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장기간 수용 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깨닫고 성격적 문제점을 개선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없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할 만큼 교화나 갱생의 여지가 전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의 중대성과 잔혹성, 피해 아동이 입은 돌이킬 수 없는 피해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선고한 무기징역형은 형벌의 균형을 잃어 무겁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친부 B씨는 해든이의 학대 상황을 방인하고 사건 참고인을 고소하겠다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6개월을 선고받았으며, 항소심에서도 형량이 유지됐다.

예상 밖의 감형 결정에 범정 안은 술렁였다. 방청석에서는 어린 자녀와 함께 범정을 찾은 시민들의 흐느낌도 터져 나왔다.

프리해든스 회원 송하정씨(41)는 “마음이 너무 아프다. 과거 정인이 사건 때도 무기징역에서 35년으로 감형됐는데 이번에도 똑같다”며 “아동학대살인에 대한 사회의 마지막 경고가 될 수 있었던 사건이

라고 생각했는데 달라진 것이 없다”고 비판했다.

친모의 감형 사유로 제시된 ‘교화와 갱생 가능성’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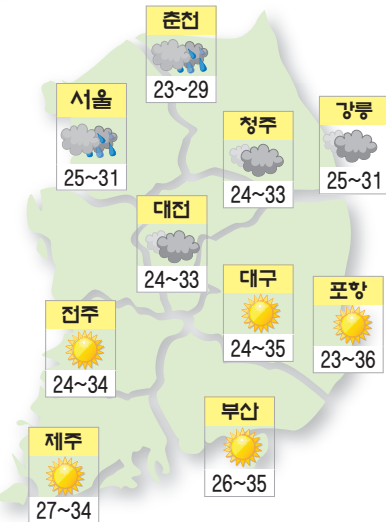
신혜은씨(33·여)는 “아이가 살아 돌아올 가능성은 없는데 가해자의 갱생 가능성을 이유로 형을 감형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모르겠다”며 “재판부가 흡캬영 상까지 확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민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 같아 허무하고 충격이 크다”고 말했다.

시민모임은 항소심 판결에 대한 문제를 알리고 아동학대 예방과 제도 개선을 위한 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다.

송씨는 “감찰이 대법원에 항소해주길 간절히 바란다”며 “대법원까지 가더라도 몇 년이 걸리든 끝까지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오늘의 날씨

☀️	예보 06:00	달달 18:10
☀️	예보 19:08	달달 03:44



광주	☀️	24~35
목포	☀️	25~34
여수	☀️	24~33
순천	☀️	24~34
구례	☀️	23~34
광주	☀️	23~34
원도	☀️	24~34
흑산도	☀️	25~31
진남	☀️	23~34
진도	☀️	23~33

목포	밀물(고)	01:18 / 13:03
	썰물(저)	06:51 / 18:35
여수	밀물(고)	07:59 / 20:43
	썰물(저)	02:19 / 14:02

치매 80대 실종…무사 구조

만년필 ○…소방당국이 신속한 대응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에서 실종된 80대 치매 어르신을 50분만에 구조.

25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소방본부 광주권역본부부와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3시54분 “치매를 앓는 아버지가 집에 들어오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는다”는 신고가 119종합상황실에 접수. 이후 소방과 경찰은 실종자를 찾기 위해 34명의 인력과 지휘차, 급급차, 드론 등 장비 10대 등을 투입.

수색 작업은 중앙공원 산책로 일대에 이뤄졌으며, 다행히 50분 만에 급조종합사회복지관 인근 산책로 옆 숲속에서 실종자를 발견.

발견 당시 실종자의 의식은 명료하고 큰 외상이 없었다고. 당국은 현장 조치 후 실종자를 안전하게 가족 품으로 돌려보내.

소방 관계자는 “앞으로도 경찰 등 관련 기관과의 신속한 공조 체계를 통해 실종자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송태영 기자 sty1235@

2027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내달 7일 시작

2027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원서 접수가 오는 9월 7일부터 시작된다.

25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따르면 4년제 대학의 2027학년도 수시모집 원서 접수 기간은 9월 7일부터 11일까지다. 대학별로 최소 3일 이상 접수하지만 학교마다 일정이 다른 만큼 지원 대학의 접수 기간을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전문대학은 1차 모집이 9월 7일부터 30일까지, 2차 모집은 11월 11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된다.

수험생은 원서접수 대행사인 ‘유웨이 어플라이’ 또는 ‘진학어플라이’ 가운데 한 곳에 통합하원으로 가입하면 여러 대학에 원서를 제출할 수 있다.

공통원서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환불 계좌정보, 출신학교 정보 등을 입력한다. 한 번 작성한 공통원서는 여러 대학에 지원할 때 재활용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수정해 제출할 수 있다.

두 원서접수 대행사 간에는 공통원서 ‘내보내기’와 ‘가져오기’ 기능도 제공된다. 공통원서를 수정·저장한 뒤 ‘내보내기’를 하면 다른 대행사에서도 수정된 내용을 불러올 수 있다.

이후 지원 대학을 선택하고 공통원서 항목 확인·수정, 대학별 지원사항과 사진 등 추가 정보를 입력한 뒤 전형료를 결제하면 원서 접수가 완료된다.

원서 접수는 원도 운영체제 기반의 크롬과 마이크로소프트 엣지 브라우저 이용이 권장된다. 김인수 기자 joinus@



청년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 25일 접재력 있는 청년 창업가를 발굴해 지원하는 ‘제4회 북구청청 청년창업아이디어 경진대회’ 참가자들이 직접 만든 제품을 들고 있다. 대회에는 41개 팀 125명의 청년이 참여했다. 총상금은 1360만원 규모로, 총 14팀을 선발한다.

사진제공=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

한빛원전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조성 설명회

한빛원자력발전소 내 사용후핵연료 임시 저장시설 조성을 추진하는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주민 설명회가 시작됐다.

한국수력원자력은 25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흥농읍귀류미센터에서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조성 계획 첫 설명회를 열었다.

설명회에는 한빛원전 인근 마을 주민과 영광군, 한수원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여했으며 고성이나 항의 없이 순조롭게 이어졌다.

한수원은 기존 습식저장조의 저장률이 86%에 도달, 2030년 포화가 예상되는 만큼 새로운 시설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빛원전 안 부지 7328㎡에 핵연료 폐기물을 저장할 ‘건식’ 저장시설을 짓기

위한 계획과 함께 안전성 확보를 최우선으로 삼는다는 방침도 주민들에게 안내했다.

가로 97m·세로 75m·높이 24m 규모 저장시설의 외벽 두께는 1.8m에 달하고, 해수면 기준 23m 높이에 지어질 예정이어서 홍수·태풍·쓰나미 등 자연재해에도 문제가 없다고 한수원은 강조했다.

한수원은 오는 26일 오전 10시 영광군 남면다목적센터, 오후 3시 영광 호텔더스터에서 같은 내용으로 설명회를 연다.

한수원은 원자력안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부, 영광군에 사업 내용 초안을 제출하고 2030년 7월 운영을 목표로 시설 조성을 추진 중이다.

영광=정규팔 기자 ykjp98@gwangnam.co.kr

해남서 또 지진… 서북서쪽 21km서 연속 발생

전남광주서 올해 92차례…위기경보 ‘주의’ 단계 상황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에서 규모 2.5의 지진이 또 발생했다.

25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41분 해남군 서북서쪽 21km 지역에서 규모 2.5의 지진(진도Ⅲ)이 발생했다.

지진의 진앙은 위도 34.66도, 경도 126.40도이다. 지진 발생 깊이는 21km다.

진도Ⅲ 지진은 건물 위층에 있는 사람이 현저하게 느낄 수 있으며, 정지하고 있는 차가 약간 흔들리는 수준이다. 지진으로 인한 소방 신고는 없었다.

지난 23일 오전 6시43분에는 같은 지

점에서 규모 3.1의 지진이 발생했다.

올해 한반도와 주변 해역에서 발생한 지진 중 가장 강력한 수준으로, 지난 3월 11일 강원 삼척시 동쪽 59km 해역에서 발생한 규모 3.1 지진(최대진도Ⅱ)과 유사한 수준이다.

진앙은 위도 34.66도, 경도 126.40도이며, 지진 발생 깊이는 21km로 관측됐다.

지진의 최대진도는 전남광주 지역에서Ⅳ로 나타났다. 지진으로 해남과 신안, 영암, 무안에서 각각 1건의 유감 신고가 접수됐지만, 인명·재산 피해는 없었다.

올해 1월부터 8월25일까지 92차례 지진(미소지진 포함)이 감지됐으며, 이와 관련한 소방 신고는 56건 접수됐다.

보통 사람이 흔들림을 감지할 수 있는 규모 2 이상의 지진과 그 미만의 규모로 지진계에만 관측되는 미세한 진동인 ‘미소지진’으로 구분한다. 올해 전남광주에서는 규모 2 이상에 해당하는 지진이 총 8차례 있었다. 이날 발생한 지진과 같은 해남군 서북서쪽 20~21km 지점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4일 이후 동일지역에서 소규모 지진이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23일 지진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하고 비상상황반을 가동 중이다. 송태영 기자 sty1235@

회재 박광옥 탄신 500주년 기념 학술대회

“의병 활동가 넘어 호남 대표 사림으로 재조명을”

나영훈 목포대 교수, 고경명 등과 지역 기반 확대 박학래 군산대 교수, 의리 정신 현실 정치에 반영

회재 박광옥 선생을 임진왜란 당시 의병 활동가로만 평가하기보다 16세기 호남 사림을 대표하는 인물이자 개혁 정치에 참여한 관료로 재조명해야 한다는 학계의 주장이 나왔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는 25일 서빛마루문화회관에서 ‘착한도시 서구’의 정신적 뿌리로 평가받는 회재 박광옥(1526~1593) 선생의 탄신 500주년을 기념하는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나영훈 국립목포대 사학과 교수는 ‘관직 생활과 인적 네트워크’를 주제로 발표

하며 박광옥 선생이 광주를 대표하는 관료로서 임진왜란 당시 호남 의병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나 교수는 “박광옥 선생이 임진왜란 당시 고령에도 호남 의병 형성에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친족·향촌 활동을 통해 쌓은 인적 관계가 있었다”며 “아버지 박곤과 큰아버지 박봉이 문과에 급제하면서 음성박씨가 광주지역 명족으로 자리 잡는 토대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박광옥은 1546년 생원시와 진사시에 모두 합격한 뒤 곧바로 중앙 관직에 진출

하기보다 다양한 인사들과 교류하며 지역사회의 기반을 넓혔다.

나 교수는 “박광옥이 고경명·김언거 등과 시문을 주고받고 정자·향교·서당 등을 매개로 교류한 것은 개인적인 수양에만 머물지 않았음을 보여준다”며 “학문과 교화를 매개로 호남 사림이 결속하고 지역사회 질서를 구축하는 과정에 박광옥도 참여했다”고 말했다.

특히 박광옥을 임진왜란 당시 의병 활동가로만 이해하는 것은 그의 생애와 역사적 위상을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다는 평가다.

나 교수는 “임진왜란 당시 박광옥이 호남 의병 활동에서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이전부터 형성된 사회적 기반과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는 25일 서빛마루문화예술회관에서 ‘회재 박광옥 선생 탄신 50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김이강 서구청장과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적 네트워크 덕분’이라며 “박광옥은 16세기 후반 호남 사족이 친족·향촌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 중앙 관료사회를 연결해가는 양상을 보여주는 중요한 인물”이라고 평가했다.

박학래 국립군산대 철학과 교수도 ‘회

재 박광옥의 의리 정신과 그 실천’을 주제로 박광옥을 16세기 호남 사림의 의리 정신을 계승한 인물로 분석했다.

박 교수는 “박광옥은 스스로의 노력으로 학문적 성취를 이뤘고 의리 정신에 투철한 호남 선후배·동료 사림과 학문을 교

류했다”며 “40대 중반 이후 관직에 나아가 성리학을 토대로 의리 정신을 실천했다”고 말했다.

이어 “사림의 개혁 정치에 동참해 향촌 교육과 교화의 활성화를 이뤘으며, 공론에 입각한 정치 실현에 누구보다 앞장섰다”며 “이러한 관직 생활은 임진왜란을 맞아 의병 활동이라는 충의의 실천으로 이어졌다”고 덧붙였다.

박 교수는 박광옥을 사후 의병 활동에만 초점을 맞춰 추송해온 기존 평가 역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재언했다.

그는 “박광옥은 임진왜란 당시 의병 활동가로만 이해하기보다 의리 정신을 기반으로 한 호남 사림의 대표 인물이자 개혁을 주도한 사림 정치의 최일선에서 활동한 관료로 기억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의 연구도 이러한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